

GRACE 선교소식

2024년 9월 GMI-GKC 선교사 현황: 60개국 329명 (자체 파송 79%)

2024년도 세계선교 마무리를 향해!

다민족을 향한 기도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지난 주일에는 아르헨티나 선교를 다녀온 후, 주일 1, 2, 3부 예배에서 설교하고, 그레이스 프리덤 비전 강의와 안수기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팜스프링스에서 열린 은혜 연합장로회를 위한 목양 장로 세미나에 참석해 기쁨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많은 일정으로 몸이 피곤했지만, 성도님들의 간절한 중보기도 덕분에 성령충만함 가운데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번 주에 훈련을 마치고 졸업하여 파송받는 GMI 선교사 훈련원 14기를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 엘리야 & 양미래(이집

트), 유경춘(미얀마), 신운영(보스니아), 박준웅 & 한윤경(모리타니아), 송좌한 & 김정희(일본), 정현우(탄자니아) 선교사님들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파송받습니다. 이분들은 우리 GMI 선교에 큰 역사를 이루어 갈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일에는 그동안 기도해온 다민족연합 기도회가 열립니다.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미국이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진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절박한 때입니다. 다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베트남 TD #3기 (10/22-10/25)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과테말라 Guatemala

최용준 / 최재숙 선교사

2024년 GMI신학교가 벌써 8과목을 마쳤습니다. 9월과 12월 두 강의를 마치면 올해 10과목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감사합니다.

과테말라(7월)와 엘살바도르(9월) 인카운터 2기 사역을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우리 GMI 인카운터 사역을 교회의 핵심사역으로 적용/추진할 현지인교회가 과테말라와 엘살바도르에 각각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과테말라 현지인교회인 '참 포도나무 교회'

(오빌 목사)는 작년에 인카운터 1기를 경험한 이후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인카운터 6기까지 진행해오고 있고, 많은 새신자들이 인카운터를 통해 은혜를 받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성막교회'(빅터 목사)도 인카운터를 내년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지난 5월 말에 있었던 니카라과 목회자 컨퍼런스를 통해 니카라과에 전도의 첫 문이 열렸습니다. 사회주의와 독재정치로 핍박받고 있는 니카라과 교회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되새기게 하는 아름다운 말씀의 잔치였습니다. 현지인 목회자 리더들로부터 영적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2-3년간 현지 사정으로 잠시 열리지 못했던 과테말라의 목회자 컨퍼런스가 올해부터 다시 분기별로 열리게 되어, 하나님께서 8월 초에 2024년 첫 컨퍼런스를 허락하셨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모여 마지막 때의 목회자들의 영성에 대한 말씀으로 큰 도전받는 아름다운 집회였습니다.



미얀마 Myanmar

곽현섭(1기) / 전재훈(12기)
강범수(13기) 선교사

인레 따웅지등 산주의 통신과 교통이 차단되었습니다. 현재 인레호수 수상마을들은 비가 계속 내리며 양쪽 산에서 들어오는 물로 인해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상 마을 1층 집들은 지붕까지 물에 잠겼고 수상선교센터는 1층이 잠겨있기에 센터 뒤쪽 2층 올라가는 층계의 옆 창문을 통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노약자들 우선으로 3대의 배로 나누어서 1차로 이동하고 2차로 육지로 이동하여 현재 100여명 가까운 인원을 임시숙소를 마련하여 대피시켰습니다. 차량 기름 수급이 어렵고 전화도 여러번 시도해야 연결이 되고 있고 인터넷이 차단되어 순발력 있게 대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에 잠긴 호텔을 제외하고 안전한 호텔을 확보하였습니다. 급하게 생후 20일된 아기부터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룬 28개에 분산하여 임시 상주시켰습니다.

인레지역에선 구하기 어렵게된 음식을 준비



하고 있는 MOT 팀들에게 줄 충전을 위해 가져온 조리용 가스통과 9일째 전기가 단전되어 연락할 핸드폰 사용도 안되기에 수상마을에 전달할 충전한 자동차용 전기 밧데리를 가지고 현장으로 가게 됩니다.

물에 잠긴 수상마을에서 1차, 2차, 3차에 걸쳐 수재민들을 안전하게 이주시키고 생활에 필요한 식사와 여러 생활용품들을 제공하며 이제는 임시 생활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수해민 현장에 아이들이 많기에 빨래팀과 관리 운영팀을 조직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MOT 선교센터는 음식 지원팀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엔 평생 살며 처음 기독교를 접하게 된 피난민들을 모아 함께 하나님에 대해 설명

하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복음의 씨앗을 심은 스텝들이 주축이 되어 피난민들과 함께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 암송으로 이끌어 가는 모습을 통해 씨앗이 자라고 있고 멀지 않아 그리스도의 숲을 이루겠다 소망이 생기는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사랑하심을 말씀으로 찬양으로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함께 이 위기를 위해 기도하며 안정화되어 마을로 돌아가면 수상선교센터를 중심으로 제2의 예수마을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식료품 확보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전화도 잠시 두절되었지만 주님을 생각하며 기쁨으로 섬기며 복음의 씨앗을 심겠습니다.

파라과이 Paraguay

김돈수 / 김미정 선교사

인카운터 2기

은혜한인교회 17그룹 선교팀과 인카운터 2기 은혜한인교회 (담임 목사 한기홍)의 17그룹에서 단기 선교팀이 오셔서 열심히 가르쳐 주시고 섬겨 주셨습니다. 17그룹 담당 김병진 목사님과 GMI선교부 코디네이터인 문기훈 목사님, 17그룹 고양섭 장로님 및 팀원들의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2명이 참석하여 한 영혼,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섬기며 전도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귀한 시간이었고 풍성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제 지역 교회들이 인카운터를 통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체계적으로 복음을 제시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시작하려고 합니다.

겨울 성경학교 (2024년 7월)

미국 동부에 계신 이 ** 권사님, 신** 권 사님의 후원으로 겨울 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파라과이와 아르헨티나에 있는 50교회 3200명의 아동이 등록했습니다. 다음 세대를 예배 가운데 세워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사 강습회

한인제일 침례교회에서 아순시온과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이 모여서 강습회를 하였고 지방에는 산타니에 있는 교회에서, 3차로 ZOOM을 통해 강습회를 열어 약 300명의 교사들이 성경학교 교재와 아트 작업, 찬양과 율동을 열정적으로 배우는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AFA #11

AFA #11이 뜨거운 열기 가운데 열렸습니다. 은혜교회 GMI 선교부의 팀장이신 안영식 목사님께서 SL로 섬겨 주셨고 현지인 목회자들

과 리더들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3박 4일간의 시간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으며 이번 AFA #11은 특별히 팀멤버의 회개와 회복의 자리가 되었다는 간증이 넘쳐났습니다.



케냐 Kenya

황광식 / 원지혜 선교사

케냐는 7-8월이 가장 시원하기 때문에 1년 중 땀에 젖어 살지 않는 유일한 두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위에 익숙하고 면역력이 약한 현지인들은 지금이 겨울이라 어른이나 아이 할 것 없이 감기와 박테리아 감염으로 아픈 사람들이 많은 요즘입니다.

학교는 8월 마지막 주에 개학하여 세 번째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8월 첫 주에는 LA은혜 한인교회에서 EM팀 20명이 방문하여 VBS (여름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킬리피에서 저희 학교 1~7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3일간 하



였고, 마라파 시골 지역으로 가서 두 군데로 나누어 '브릿지 은혜교회'와 '마라파 은혜학교'에서 3일간 여름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팀 멤버들은 아낌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케냐의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아이들은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벌써 내년 VBS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악하고 제한된 환경에서 불평하지 않고 기쁘게 사역한 팀멤버들에게 감사합니다.

신학교는 지난 7월에 한국에서 PBWM(Paul Bible World Mission) 목사님들이 오셔서 한 과목 강의해 주시고, 그 다음 주 한 주간은 목회자 세미나를 인도해주셨습니다. GMI-타나리버 카운티에 있는 사모님 한 분은 몇 년 전에 뱀에 다리가 물린 이후로 회복이 되지 않아 계속해서 다리가 아팠습니다. 병원에도 다니고 여러 가지 다리에 좋다는 약도 먹고, 킬리피에 올 때마다 진통제와 파스를 챙겨준 것만 해도 벌써 수년째입니다. 그런데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여 다리가 고침 받아 잠고 다니던 지팡이를 던져 버리고 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두 곳을 건축하였습니다. 브릿지 은혜교회와 마자야니 은혜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교회건축이 계속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들을 통하여 케냐 구석구석에 복음이 전해지고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중고등학교 건축소식입니다. 내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1~3학년 교실 세 개와 교무실이 지어졌고, 현재 식당 건축 중에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으로 지어지는 학교입니다.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러시아 Russia

은성식 / 김경희 선교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년 전에 허리 협착증 디스크로 윈다리를 많이 절개 되었습니다만 병원에서 통증이 심하지 않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으면 마지막 수단으로 수술하라고 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계속 은혜 사랑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하는 중, 올해 봄에 윈다리를 더 심하게 절록거리게 되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양말을 신고 벗는 일이 너무 힘들고 아팠지만 수술하지 않고 3달 동안 여러가지 마사지, 한방병원, 자가 운동법으로 정성을 다해서 노력한 결과, 허리와 골반이 많이 좋아졌고 양말 신을 때 아픔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윈다리 발목의 발가락 신경이 살아나지 않아 계속 절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선교지 교회를 비울 수가 없고 할일이 많아서 다시 러시아 아무르 소망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계속 자가 운동법, 자가 마사지로 치료하고 신경을 살리는 마사지를 아내 김경희 선교사님이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과 은혜로 급속히 치료가 되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간절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이스라엘 알리아 운동과 이스라엘 선교에도 동참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선교 은혜사랑교회 개척 건축을 잘하도록, 3년 안에 성장하고 마무리하고 제자 일꾼 양성을 해서 자립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꼭 은혜사랑교회에 올해 가을 안에 도시가 설치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무르 소망교회도 청년들이 부흥하고, 리더 전도사 세르게이와 바사가 신학훈련을 은혜 중에 잘 마치고 훌륭한 전도자 목사 일꾼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무르 소망교회는 교회 건물과 시설이 오래되어 낙후되어서 계속 수리 중에 있고 차고를 카페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잘 마무리해서 교회 카페를 통해서 전도와 성도의 교제에 큰 유익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들 은민음이는 히브리대학을 졸업하고 2년 전에 결혼해서 딸 지음을을 낳았습니다. 지금 9개월째입니다. 히브리대학을 졸업한 아들이 신학을 해서 이스라엘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필리핀 Philippines

김적용 / 박영란 선교사

지난 5월 앙겔레스에서 은혜 한인교회 선교팀의 8월 필리핀 선교를 위해 준비하던 중 생각지도 못한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필리핀에서 치료하던 중 회복이 어렵다는 판단 하에 한국으로 극적으로 이송되어 치료받다가 지난 8월 14일 퇴원 후 한주간 필리핀 사역지 방문 후 다시 후속 치료 때문에 잠시 한국에 나와서 일주일여 두 번 외래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제게 일어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처음에 의사는 적어도 6개월은 지켜보아야 한다고 했는데 너무 빨리 회복되어 퇴원하고 외래진료 후 9월 27일 인지능력 평가를 한 후 10월 8일 판정 결과에 따라서 필리핀 현장으로 복귀도 고려할 수 있다고 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제게 주어졌는지 자신을 살피며 기도하던 중 발견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첫째, 저의 인생과 사역이 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내 죄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

주시고 “너는 내것이다. 네 맘대로 살 인생, 네가 좋아하는 사역할 사람이 아니다.”고 하셨기에 지금까지 세 번의 죽음의 위험에서 저를 건지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든 삶과 사역에서 나를 책임지시고 주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둘째, 돕는 주님의 식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의 치료를 위해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사를 구하는 것도, 병원비 모금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나를 위해 돕고 기도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G.M.I 교회와 예수 가족 식구들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은혜 한인교회의 한기홍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후원금을 보내주셨고, 안영식 목사님, 이희경(Shawn Lee) 안수집사님과 부인 집사님, 문기훈 목사님과 아시는 목사님도 직접 방문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일은 제게 우리 파송교회가 한 가족 예수 가족이라는 자긍심을 높여주었습니다.

셋째, 주님께서 나를 통해 보여 주시려는 당신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시고 이제 사막에 강을 광야에 샘을 내시고 새 일을 행하시려는 뜻이 있으니 더욱 나를 찾고, 구하여 너의 모든 사역을 나 주 예수와 성령으로 일하게 하라고 하심을 발견합니다. 나는 할



수 없고, 부족하고 미련한 것뿐이나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함께 사시고, 일하시는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저의 남은 생애에 주님을 보여 주고 드러내는 일에 더 온전하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고를 인해 현장에 없을 때 진행된 8월과 9월의 사역은 주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가를 잘 드러내고 보여 주셨습니다. 성경학교(VBS), 교사 줌 교육, 인카운터 수양회를 위한 매주 교육, 미국 선교팀과 함께 한 사역들은 저희 현지 성도들에게 매우 유익한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마음 먹고 계획한 대로 다 잘 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길과 도전을 주신 주님의 은혜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한 층 더 깊고 높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나 혼자 할 수 없는 사역을 함께 연합해서 하는 새로운 사역을 할 수 있었기에 매우 의미가 있었고 감사했습니다.

C국

장O 선교사

저희 5가족은 8월 중순에 무사히 잘 입국했습니다. 감사하게 낡고 몇년간 아무도 살지 않던 집이지만 도시에 집 한 채, 목장지역에 전기가 되는 곳 한 군데에서 무료로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오자마자 무화과 축제 컨설팅을 했고, 기업가치를 새롭게 심어주었습니다(지금의 사장님은 저희가 7~8년 전 전도했던 친구입니다).

FIG, Father in Grace

성경적인 가치관을 뿌리에 심고 진행한 것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고, 저희가 디자인해 준 단체티와 12장의 기업가치와 비전을 녹여낸 업서는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10월까지 무화과와 포도축제를 하게 됩니다. 격주로 백화점에



서 활동과 함께 홍보 겸 기업가치가 담긴 엽서를 나눌 예정입니다. 참여했던 전국 각 도시 50여개의 농공인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 것 같습니다. 이들 중 여러 업체에서도 자신의 기업경영가치 컨설팅을 부탁해 왔습니다. 앞으로 이들과 관계하면서 이전에 했던 일의 연장으로 Goal은 신우회로 잡고 있습니다.

추석 때 목장에서는 저희의 귀가를 축하하며 화목제가 드려질 예정입니다. 목장에는 ‘민수기 광야 프로젝트’를 이제부터 저희가 전도했

던 사람들과 나누며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관통하는 ‘양과 목자’ 스토리를 칭키즈칸의 후예가 직접 광야에서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를 통해 스토리텔링하도록 소그룹에서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목장지역의 황폐화를 막기 위해 나무심기가 이미 진행되었고, 정부와 연결해 묘목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개인기부와 기업기부를 초청해 공산당 산하의 NGO도 설립하려고 기도 중입니다. 앞으로는 목장과 각 도시들을 오가며 사역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Indonesia

기OO 선교사

교회 사역

새학기가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새로운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매주 50-70명의 학생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매주 새로운 학생이 나오는 것에 비해 함께 예배하는 수는 고정적입니다. 전통과 습관에 의해 예배와 모임 공동체에 나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딸(에스더)과 조카(디온) 두 명의 고등학생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세례는 침례로 진행되는데 보통은 교회 안에 침례식장이 있거나 수영장, 근처 계곡에서 진행합니다. 세례 받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가운데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달에 한 번 정도 설교의 기회가 주어짐에 감사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언어이지만 필요한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듣는 자들에게 명

확하게 전달되어 지기를 소망합니다. 9월 26일에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양육 및 제자훈련

D3 훈련을 받은 후 7월부터 매주 월요일은 기숙사 친구들과 공동체 리더들에게 양육을 하고 있으며 화요일은 현지 사역자 부부, 한국인 선생님 부부와 함께 교재를 공부하며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기에 맞춰 시작된 공동체 모임에서 양육 받은 리더들이 동일한 교재를 적용하며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섬에서 유학 와서 공동체와 예배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양육을 통하여 복음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며 말씀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장학 사역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는 말랑 지역에 사는 후원 아동들과 가족이 모여 감사 예배와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타도시에 있는 후원 아동도 만나고 왔습니다. 자주 만나지 못하겠지만 기도하며 아이들의 영과 육의 성장과 건강을 위해 함께합니다. 일대일 후원을 기다리는 학생들이 아직 있습니다. 일대일 후원자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노방전도 및 땅 밟기 기도

방학을 보내며 새로운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발걸음을 떼면 언제나



하나님께서서는 예비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면 제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기대한 만큼의 많은 사람들이 아니어도, 바로 전할 수 없어도, 관계를 계속해서 쌓아가며 저의 삶과 나눔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며 주님의 때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통독

무엇을 지속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삶의 우선 순위에 밀려 점점 참여하는 친구들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대신, 교회에서 예배 시간과 기도회 시간에 시편과 잠언을 읽기로 했습니다. 함께 통독하며 주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며 말씀에 뿌리내린 신앙을 가지길 기도합니다. 한국어 성경 읽기는 주 3회 2~3장씩 교독으로 읽고 있습니다. 어느덧 신구약 각 8권씩 읽고 사무엘상을 읽고 있습니다. 성실함으로 함께 하는 조안에게 성령의 지혜로 깨닫는 은혜가 더해지길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Tanzania

송규영 / 오효숙 선교사

저희들을 위해 늘 기도하시고 또 물질로 도우시며 에버그린 학교 건축에 함께 동역하시는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건축 소식 드립니다.

지난번 소식 드릴 때 콘크리트 바닥 기초공사를 마쳤다는 소식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콘크리트가 잘 굳게 하기 위해서 약 3주간을 계속 물을 뿌려주며 기다렸고 그 결과 아주 잘 굳어서 지금은 교실 벽돌쌓기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소식을 전해 드리려고 했으나 벽돌쌓는 공사업자 선정과정에서 공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도급공사를 하기 보다 직영으로 일할 실력있는 공사업자를 찾다보니 차일피일 시간이 꽤 걸려서야 찾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공사시작이 좀 지연되었고 또한 소식을 늦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벽돌쌓기 공사를 순적히 일할 실력 있는 공사업자를 만나도록 섭리하시며 도우시는 우리 주님께 먼저 감사드리고,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와 귀한 건축헌금으로 동역해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 초기에 저희들의 계획은 무더운 계절인 12월~2월이 오기 전에 1층 공사를 마치고 아이들에게 좀더 나은 교실로 이사하고자 하였

지만, 공사비용이 부족하여 기동공사, 1층 슬라브공사, 화장실 공사 등을 마무리 못해 내년을 바라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렌트해서 사용하고 있는 좁은 교실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때는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바라움기는 좁고 더운 교실에서 공부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증문

쿠바 인카운터 & VBS

G27 / 김경미 집사

저희 가족은 남편과 저, 그리고 12살 큰아들, 9살 둘째아들 그리고 6살 딸과 함께 첫가족선교를 떠났습니다. 남편이 2월에 쿠바 TD를 다녀온 후, 7월에 아이들과 함께하는 단기선교가 있으니 가자고 말을 하자마자 저도 고민없이 기쁨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이번 방학은 가족 여행이 아닌 가족 선교를 갈꺼라고 전했을 때, 아이들도 매우 기뻐했습니다. 매년 아빠가 2-3번 단기 선교를 가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이 항상 함께 가고 싶어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쿠바 단기선교는 어른들 사역으로 **인카운터**, 아이들 사역으로 **쿠바 VBS** 이렇게 두 가지 사역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남편은 인카운터 팀에 배정이 되고 저와 아이들은 VBS 팀으로 배정되었습니다. 팀 배정 후, 4월 초부터 시작된 VBS 팀의 펀드레이징 준비와 아이들을 위한 라인, 주말 기도 모임, 그리고 매일 바이블 타임하며 팀멤버 아이들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VBS 팀 아이들이 쿠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매주 스킷과 댄스를 연습하고 아이들이 서로 시간을 맞추어 쿠바 단기선교를 위해 기도 모임을 하는 모습을 보며, 어른들 못지않게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모든 팀멤버들은 열심히 준비한 후, 쿠바로 떠났습니다. 쿠바 공항에 도착하자 LAX와는 달리 에어컨이 없는 습하고 더운 환경을 경험했지만, 아이들은 한 명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선교관에 도착해 짐을 정리하고, 300명의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VBS 소품을 나누는 시간에서도 아이들은 힘들어하지 않고, 어른들과 협력하여 모든 것을 진행했습니다.

쿠바 VBS 주제는 “사랑”, 말씀은 요한복음 3: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의 주제로 게임, 스낵, 크라프트, 바이블 비 스테이션을 진행되었고, 저는 4개의 스테이션 중 크라프트 스테이션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크라프트를 준비하면서 걱정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스페인어를 모르기 때문에 소통의 어



려움으로 자유롭게 예수님을 전할 수 없는 것과 하루만 만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였습니다. **선교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동안 주님이 주신 감동은 현지인 아이들에게 “예수님” 이름만이라도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였습니다. 아이들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힘든 시간, 외로운 시간을 이겨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었습니다.**

VBS 첫날, 날씨가 너무 더웠지만 아이들이 바이블 비에서 열심히 외운 말씀을 크라프트 스테이션에서 큰소리로 암송했을 때 너무 사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모든 스테이션이 끝난 후, 아이들과 찬양하고 설수진 목사님의 인도로 팀 멤버들은 현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두 여자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눈물이 났고 그 아이들의 아픔, 가정폭력, 가정의 어두운 부분들, 슬픔 그리고 희망 없는 미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일상에 돌아가 VBS 때 배운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리며 행복했던 시간을 다시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기도한 아이들 삶에 가정이 변화되고, 더 나아가 동네가 변화되고 그리고 주님의 빛이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고, 슬픔이 기쁨이 되고, 희망없던 미래가 희망가득한 미래로 변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나 또한 이 아이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살기 원하신다는 깨달음을 주셨**

니다. 쿠바 선교를 간다고 결정한 순간부터 주님이 주신 깨달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앞으로 있을 고난과 힘든 상황에서도 나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더욱 우리 가족이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힘을 얻어야겠다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온가족이 떠난 쿠바 단기선교를 다녀온 후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번째로 아이들이 온가족이 함께 떠난 단기선교가 너무 좋았어서 다음 선교지에 대해 기대와 또 쿠바 선교를 가고싶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첫선교가 좋은 추억으로 남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둘째로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배탈나지 않고 잘 지내줘서 남편과 제가 맡은 사역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쿠바를 떠나기 4일전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 해결을 못하고 떠난 저희 마음에 불안이 아닌 평안을 주셨고 돌아와 쿠바 때 받은 은혜로 힘든 시기를 주님 안에서 잘 버티고 잘 해결이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이번 가족 단기 선교를 통해 부모의 삶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고, 쿠바 VBS를 담당해주신 설수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각 부서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섬겨주신 팀멤버들께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팀멤버 한분한분 덕분에 저희 가족이 의미있는 첫 가족선교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 드립니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파라과이 김돈수 / 김미정 선교사

1.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며 살 수 있도록
2. 바쁜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건강한 체력이 되도록
3. 고국에 계신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하여
4. 한국에서 학업을 하는 큰 아들 용욱이와 한국 군에 복무 중인 작은 아들 용준이를 위하여
5. 하반기 진행될 사역을 위해(LADY141 네일 아트 교육생들을 위해, 9월 28일 비전캠프, 10월 29일부터 있을 교사 강습회를 위해, 9월/10월/11월 진행될 신학교 수업을 위해)



과테말라 최용준 / 최재숙 선교사

1.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2. 깨팔테낭고/썸빵고 은혜교회(라 그라시아)의 부흥을 위하여
3. GMI과테말라 신학교 2025년 신입생이 원만히 충원될 수 있도록
4. 중미 6개국 교회연합 사역에 부흥이 있도록
5. 최재숙 선교사 류마티스 관절염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기OO 선교사

1. 예배에 참석하는 학생들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며 신앙 안에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신학기 감사 예배를 위해(9월 말 예정), 많은 학생들이 예배를 드리고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2. 영어 한국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기쁨과 성실함으로 공부하며, 지혜와 사랑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3. 장학금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 후원자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인 매월 3만원)
학생들과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학생들이 지혜와 총명으로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4. 인도네시아 서부 누사틍가라 종족군을 위하여
5. 기숙사에 사는 친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6. 개인적으로 10월에 새학기가 시작되면 논문을 쓰고 실습을 나가야 하는데 지혜롭게 잘 해낼 수 있도록

모로코 장원 선교사

8월내내 알 수 없는 이유로 두통과 설사를 한 달내내 반복하다 27일 위, 대장내시경을 받았는데 무려 2cm 용정을 제거하였습니다. 다음날 28일 밤에 하혈을 무려 3리터 이상 하였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피가 많이 (2~3리터) 흐를 때 주님의 은혜로 강영철 목사님께서 기도해주시고 성도님들께서 기도해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피가 주춤하여 그 다음날 신속히 의사선생님의 응급처치를 받아 3~4일에는 피가 완전히 멈춰 혈전제를 재복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혈을 막기 위해 혈전제를 안 먹으면 그만큼 뇌경색은 높아지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혈이 완전히 멈추어 안심하고 혈전제를 재복용한 후 현기증을 겪었으나 강영철 목사님과 강희영 사모님께서 제가 있는 속초까지 오셔서 친히 기도해 주심으로 현기증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더 건강 회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라크 죠셉 김 선교사

주님 안에서 수술을 잘 받고 깨어나 기도의 동역자들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회복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 합병증이 없는 순조로운 건강회복
2. 회복과정에서 주님의 은총을 얻기를
3. 이번 고통과 아픔을 통해 느낀 교회의 사랑과 성도님들의 눈물어린 기도와 따뜻한 사랑에 감사함을 보답하기 위해 선교지에서 더욱 열심을 가지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4.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케냐 황광식 / 원지혜 선교사

1. 9월 9일~20일 제98차 신학교를 위해서
2. 유치원, 초등학교 마지막 학기와 6학년 국가고사(10월 말) 위해서
3. 중고등학교 건축과 개교 준비가 잘 되어지도록
4. 건축된 교회들의 부흥과 영적성장을 위해서
5. 선교사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필리핀 김적용 / 박영란 선교사

1. 김적용 선교사의 온전한 회복과 필리핀 사역지로 복귀가 11월 중 이뤄지도록
2. 홍수피해로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들이 안정을 찾고 믿음을 지키도록
3. 전도훈련과 가정교회 세우기가 잘 계획되고 진행되도록
4. 현지 목회자 재교육과 필리핀 교회각성을 위한 119 기도회 사역을 위해
5. 아들 김한음 캐나다 시민권 시험과 승인이 잘 되도록
6. 필리핀 GMI를 통한 현지 사역자들의 성장이 있도록



러시아 은성식 / 김경희 선교사

1. 러시아선교 은혜사랑교회 개척 건축을 잘 하도록
2. 아무르 소망교회의 청년들이 부흥하고, 리더 전도사 세르게이와 바사가 신학 훈련을 은혜 중에 잘 마치고 훌륭한 전도사 목사 일꾼이 되도록
3. 아내 김경희 선교사의 심장이 튼튼하고 신경성 고혈압과 미약한 공황장애를 넉넉히 이기도록
4. 은혜사랑교회 건축과 전도의 기동력을 위한 미니버스 차량이 준비되도록

선교부 광고

1.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네팔 은혜복음 워크샵 (10/3-10/12)**
S/L: 신영자 목사
문의: 최윤정 장로 (714-943-4076)
- **태국 TD 1기 (10/14-10/17)**
S/L: 안영식 목사
렉터: 고양섭 장로
코디네이터: 남양호 장로
총무: 노우중 안수집사 (213-761-3590)
- **인도개척선교 (10/18-10/26)**
팀모임: 9/23(월) 7PM, 205A
10/1(화)~10/15(화) 7PM 웨딩채플
문의: 전재우 안수집사 (562-644-2128)
최윤호 장로 (714-357-7149)

- **베트남TD 3기 (10/22-10/25)**
S/L: 한기홍 담임목사
디렉터: 안재경 안수집사
문의: 안규범 안수집사 (714-328-4820)
- **히말리야 TD 6기 (10/22-10/25)**
S/L: 전혜숙 목사
렉터: 백미영 권사
문의: 조 제이슨 집사 (213-905-0636)
- **인도네시아 미전도 종족 & 개척선교 (10/31-11/12)**
팀리더: 홍호철 장로
문의: 이정호 안수집사 (213-500-7939)
- **엘살바도르 AFA2기 (11/3-11/10)**
S/L: 안영식 목사
렉터: 피터이 안수집사
문의: 차윤석 안수집사 (714-334-2340)

2.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 AM
문의: 의료선교국

3.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을 위한 예배

온라인 (매월 첫째주 화요일 7:30 PM)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4.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 AM

5.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